

실화의 힘...軍 문제 폭로작 '1급기밀' 내달 개봉



故 홍기선 감독의 유작 '1급기밀'이 2018년 1월 개봉한다. 고인의 사회 고발 실화 3부작 가운데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져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지난해 타계한故 홍기선 감독의 기일을 나흘 앞둔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CGV압구정에서 영화 '1급기밀' 제작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1급기밀'에 출연한 김상경

故 홍기선 감독의 사회 고발 실화 마지막 작품 국가 이름으로 봉인된 내부자들의 거래 폭로

김육빈 최무성 최귀화 김병철이 참석했다. 이날 김상경은 "우리 모두 '감독님이 이 자리에 같이 있으면 참 좋은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은 오히려 감독님 생각을 많이 안 하려고 노력한다. 그냥 감독님이 곁에 있다고 생각하고 홍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면서 "슬픔을 느끼지 않고 온전히 영화로 감독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관객들을 만나고 싶다"고 고백했다. 김육빈은 "감독님은 현장에서 화를 한 번도 내지 않았다. 내가 기억하는 현장 속 모습"이라면서 "지금도 돌아가는 게 믿기지 않는다. 영화가 완성돼 나온 만큼 작품이 잘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놓았다. '1급기밀'은 국가라는 이름으로 봉인된 내부자들의 은밀한 거래를 폭로하는 범죄 실화극. 2002년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외압설 폭로와 2009년 군납문제를 MBC PD수첩을 통해 폭로한 해군 소령의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품이다. 비진항 최정기수 김성명의 실화를 다룬 '선택'과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

을 극화한 '이태원 살인사건'에 이어 홍기선 감독의 사회 고발 실화 3부작 마지막 작품이다. 먼저 김상경은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는 '박대익' 중령 역을 맡았다. 김상경은 "나는 정치색이 없는 배우다. 그런데 '화려한 휴가'를 통해 괜히 정치색이 조금 생겼다. 광주와 관련된 영화라서 그런 것 같다"고 고백했다. 김상경은 정치색과 무관하게 '실화' 소재의 작품이라 끝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화의 힘이 엄청나게 세다. 다른 작품보다 실화를 근본으로 하는 작품을 더 좋아한다"면서 "이번에도 처음에 읽었을 때 시나리오에서 힘을 느꼈다. 고발 영화라 끝난 것은 아니다. 일부러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요즘 사회 분위기와도 잘 맞더라. 영화의 힘이 좋았다. 이 세상에 있어야 할 영화라고 생각했다"고 출연 계기를 밝혔다. 김육빈은 올해의 기자상을 수상한 탐사보도 전문가 '김정숙' 역으로 열연했다. '소수의견'에 이어 두 번째 기자 캐릭터. 김정숙은 과거 PD수첩을 이끌었던 최승호

MBC 사장을 모티브로 한 인물이다. 김육빈은 "'소수의견'보다는 조금 더 성장한 캐릭터였다. 끝까지 놓지 않고 책임감 있게 사건을 이끄는 인물이라 그런 변화가 정말 좋았다"며 "기자 캐릭터를 한 번 해봐서 좀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사건의 실재인물인 기자를 만나서 사건의 진행 과정을 듣다보니 반성되더라. 내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라고 고백했다. 실제로 최승호 사장(당시 PD)과 만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접했다는 김육빈은 "만남 이후 '노력하고 잘 해보겠다. 잘 만들어보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며칠 전에 그 분이 MBC 사장님이 됐더라"고 전하기도 했다. 더불어 김육빈은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지는 않다. 많이 참고 살고 있다"면서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너무 하고 싶었다. 개봉 후 우리 작품이 어떻게 보여지고 평가받을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 해 본 적 없었다.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최선을 다해서 작품에 임한다"고 밝혔다. 배우들 간의 훈훈한 덕담도 오갔다. 김상경은 김육빈의 존재감에 대해 "사피에서 오아시스를 보는 느낌이었다. 일단 말투가 부드럽더라. 오늘도 우리 작품의 흥집"이라고 칭찬했다. 최귀화는 "'악녀'를 같이 찍었는데 사람을 치고 패고 때리고

다니다가 이번엔 또 만났다. '1급기밀'에서도 포스가 있더라. 존재감이 대단했다"고 말했다. 영화 '4등'과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최무성과 '범죄도시'의 흥행 일등공신 최귀화, 드라마 [도깨비]의 신스틸러 김병철, 영화 '군함도'의 신승환 등도 함께했다. 최귀화는 "시나리오가 정말 탄탄하다. 보통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못 읽는데 이 작품은 단숨에 읽었다. 사회적인 편견이 없다면 그 어떤 영화보다 재밌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추천했다. '1급기밀' 배우들은 자칫 영화가 무거운 정치 영화가 될 것을 우려했다. 김상경은 "정권이 바뀌니까 이런 영화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일부러 시기를 맞춘 게 아니다. 우리가 영화를 작업할 때는 현 대통령이 아니었다. 우연치 않게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을 뿐"이라며 "우리 영화는 정치적인 영화가 아니다. 이순신 장군 시절부터 있었던 군납 비리에 대해 이야기한 것. 상업 영화다. 재밌게 봐달라고 강조했다. 김육빈 또한 "먼저 영화를 봤는데 무거운 영화가 아니었다.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봤다"고 거들었다. '1급기밀'은 감독의 뜻을 이어 동료 영화인들이 후한 작업을 마치고 2018년 1월 개봉 예정이다.

'미우새' 김수로, 모벤저스 사로잡은 로맨틱 마왕



SBS 예능프로그램 '미우새' (이하 '미우새') 김수로가 특유의 유쾌한 매력과 입담으로 모벤저스를 사로잡았다. 10일 방송된 '미우새'에서는 스페셜 게스트 김수로가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신사의 품격' OST와 함께 등장했다. 배우임에도 개그맨 뺨치는 재미 있는 캐릭터로 많이 알려졌던 김수로는 '미우새' 어머니를 앞에 앉자 그동안 쉽게 꺼내지 않았던 개인사도 스스럼없이 꺼내놓았다. 김수로는 첫사랑과 13년 연애하고 결혼했으며 결혼 11년이 된 지금도 12시 통금을 지키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MC 신동엽의 것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했다. '미우새' 아들들의 모습도 시신을 사로잡았다. 감전되는 드론 자격증을 따겠다고 이에 필요한 사진을 백가에게 찍어달라고 부탁했다. 건모가 찾아간 백가의 집은 백가만의 스타일이 살아있어 모두를 놀라게 했다. 건모는 직접 준비한 돗자리 반사판을 들고 사진을 찍었고, 백가는

포토샵 실패로 건모의 화춘을 도왔다. 박수홍은 친구들과 배기성의 결혼을 축하하러 결혼식장을 찾았다. 내내 부러움을 숨기지 못하던 수홍은 배기성이 신부를 위해 준비한 노래 이벤트를 보고 눈물까지 흘리고 말았다. 노총각 친구들은 복잡한 마음을 풀고 고향을 먹으러 갔다. 박경림까지 합류해 결혼과 출산 '정자 냉동'까지 현실적인 대화들이 오갔다. 남창희가 '냉동 유희기간이 3, 4

년이면 소용없다. 그 안에 형들은 못 갈 것 같다"고 단호히 얘기하자 수홍은 정색했고, 경림은 "애네 4명만 끊으면 갈 수 있다"고 응원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라면을 먹으며 TV를 보는 수홍의 모습은 1년 전과 변함없이 보여 보는 이의 마음을 찡하게 했다. 이상민은 단딘의 이사를 도우러 갔다. 생애 첫 독립이라는 단딘은 집 크기에 어울리지 않는 과분한 가전 가구를 구입해 상민이 허를 차게 만들었다. 상민은 정리를 도운 뒤

이시한 날은 짜장면을 먹어야 한다며 의기양양하게 인스턴트 짜장과 만두, 야채를 꺼냈다. 야채와 만두소를 볶고 인스턴트 짜장의 분말 가루와 면을 활용한 '궁서리 만두소 짜장면'의 비주얼은 진짜 중국집 짜장면과 다를 것이 없었다. MC들과 어머니들, 김수로까지 모두 입맛을 다실 정도 반찬반의했던 단딘은 그 맛에 깜짝 놀라 정신없이 흡입했고, 해당 장면은 시청률 23.9%까지 치솟으며 '최고의 1분'을 장식했다.

해 KBS 드라마 최고시청률이다. '황금빛 내 인생'은 방송 초반부터 속도감 있는 스토리 전개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이 드라마 또한 출생의 비밀과 재발남과 흡수 저 캔디 캐릭터의 만남 등 여느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뻔한 소재를 담았다. 하지만 '황금빛 내 인생'의 소현경 작가를 이를 영리하게 비유했다. 출생의 비밀이 종영이 가까워져야 밝혀진 게 아니라 방송 초반 밝혀면서 시청자들의 흥미를 자극했고 이는 곧 시청률 상승으로 이어졌다. 물론 KBS 2TV 주말드라마가 고정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어 선보는 드라마마다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기 하지만 '황금빛 내 인생'은

"41.2%" '황금빛...', 시청률 50%도 노려볼 만하다

시청률 40%의 벽을 깨 '황금빛 내 인생'... 실현 불가능할 것 같았던 '꿈의 시청률 40%'를 넘긴 이 드라마가 50%도 돌파할 수 있을까. KBS 2TV 주말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이 지난 10일 드디어 시청률 40%를 기록했다. 이날 시청률 41.2%(닐스코리아, 전국방송가구 기준)를 기록했다. 이는 '가족끼리 왜 이래' 이후 3년여 민의 영광이다. '가족끼리 왜 이래' 이후 부파해오 엄파, 왜계수 양복점 신사들', '아버지가 이상해' 등이 시청률 35%를 넘겼지만 40%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황금빛 내 인생'이 방송 3개월 만에, 그리고 30회 만에 시청률 40%의 기록을 세웠다. 울

빠른 스토리 전개로 시청자들을 단번에 사로잡으며 방송 4주 만에 시청률 30%를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웠다. 이 같은 시청률 상승은 소현경 작가의 전작 '내 딸 서영이'보다 빠르다. '내 딸 서영이'는 34회 만에 시청률 40%를 돌파했지만 '황금빛 내 인생'은 30회 만에 40%를 넘겼다. '내 딸 서영이'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50회가 47.6%의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황금빛 내 인생'은 '내 딸 서영이'보다 빨리 시청률 40%의 고지에 도달해 이 기록을 뛰어넘어 50% 돌파도 노려볼 만하다. '황금빛 내 인생'이 최도경(박시후 분), 서지안(신혜선 분), 장소



라(유인영 분) 삼각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을 예고했는데, 이들의 삼각관계가 시청률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늘의 순세 2017년 12월 12일 화요일 (음력 10월 25일)

<p>▶ 쥐 하려는 일 조금 늦어져도 실망하지 말고 서서히 추진하라. 두 배 기쁨이 기다리니 큰 금전적 소득이 있겠다. 애정은 조건을 내세우다 모든 것 잃을 수 있다. 진실한 사랑을 추구하라.</p>	<p>▶ 용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를 위한 방판으로 투자한다면 현재보다 더 큰 발전이 눈앞에 보인다. 가까운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면 작은 지혜를 얻고, 금전 문제도 술술 풀린다. 그, 자, 번 생애 답답함을 여행으로 풀고 새롭게 다짐하라.</p>	<p>▶ 원숭이 새롭게 시작하기보다 현 위치에서 안주해야 금전 손실을 막을 수 있다. 동료와의 사사로운 언쟁을 피하고 협력하면 큰 성과를 거둔다. 먼 길 외출은 삼가라. 피로가 누적하면 건강에 이상 있겠다.</p>
<p>▶ 새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맡은 일을 성실히 해야 큰 만복을 얻을 수 있다. 다소 오해가 생길 일이 있으나 시간이 해결해준다 귀담아들지 말라. 7, 8, 9월생 가정일에 신경 쓰다 육체적 피로가 쌓이니 건강에 유의하라.</p>	<p>▶ 돼지 자신의 분수와 지켜야 할 부분을 알고 행할 때다. 명예보다 실리를, 욕심보다는 신용을 바탕으로 추구할 때 사업 또한 대성할 수다. 1, 4, 9월생 투기는 생각지 말며, 가정에 충실함이 행복을 갖는 길이다.</p>	<p>▶ 닭 어제의 사소한 일을 크게 생각하지 말라. 감정이 격하면 매사를 바르게 볼 수가 없으니 격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안정해야 한다. 3, 5, 12월생 타인의 의를 받아들일 줄 아는 아량이 필요한 때다. 낙심은 금물.</p>
<p>▶ 호랑이 여러 사람 의견을 받아들여 새로운 일에 과감히 투자할 때다. 가까운 친구나 주위 사람에게 협조를 구하라. 도움의 손길이 따른다. 그, 자, 번 생애는 두셋을 가지려다 하나마저 놓치는 격임을 명심하라.</p>	<p>▶ 말 현재에 충실하라. 과욕은 금물이다. 막혔던 일들이 차츰 없어지니 손풍에 돛단배를 탄 격. 그, 자, 번 생애 업무에 시달리다 건강의 중요성을 생각할 여유가 없구나. 1, 4, 9월생 모든 것을 잊고 여행으로 기분 전환하는 것은 어떨지.</p>	<p>▶ 개 답답하고 짜증이 나도 자기 일은 자신이 처리하라. 수입은 적고, 지출이 많을 수니 절약이 최대임을 알 때다. 힘을 내라. 친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이 도래함을 알라. 11월생은 2, 8월생은 조심함이 좋을 듯.</p>
<p>▶ 토끼 사랑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기회를 놓치고 한숨 쉬는 물 건너간 뉘니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2, 8, 12월생 계획한 일은 서둘러 말고 서서히 진행하라.</p>	<p>▶ 양 남동쪽 귀인의 도움으로 어려운 위기가 풀릴 듯. 알지 못했던 사업 구상까지 지혜를 얻는다. 활기차게 하루를 보내라. 소, 개, 양과 함께할 때 금전 손실을 막을 수 있을 듯. 4, 5, 6월생 검은색은 피하라.</p>	<p>▶ 돼지 자신 있게 확신하며, 무슨 일든 긍정적으로 추진하라. 인생은 좌절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사람의 것임을 알라. 애정에도 관심을 두고 마음의 문을 열라. 사랑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p>